

2021 겨울

제217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서로 사랑하여라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23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김성천 스테파노 (P.20)

이종안 사도요한 (P.24)

김윤복 모세

김태근 베드로

신광수 베드로

박민우 알베르토

김필종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P.07)

김재원 베드로사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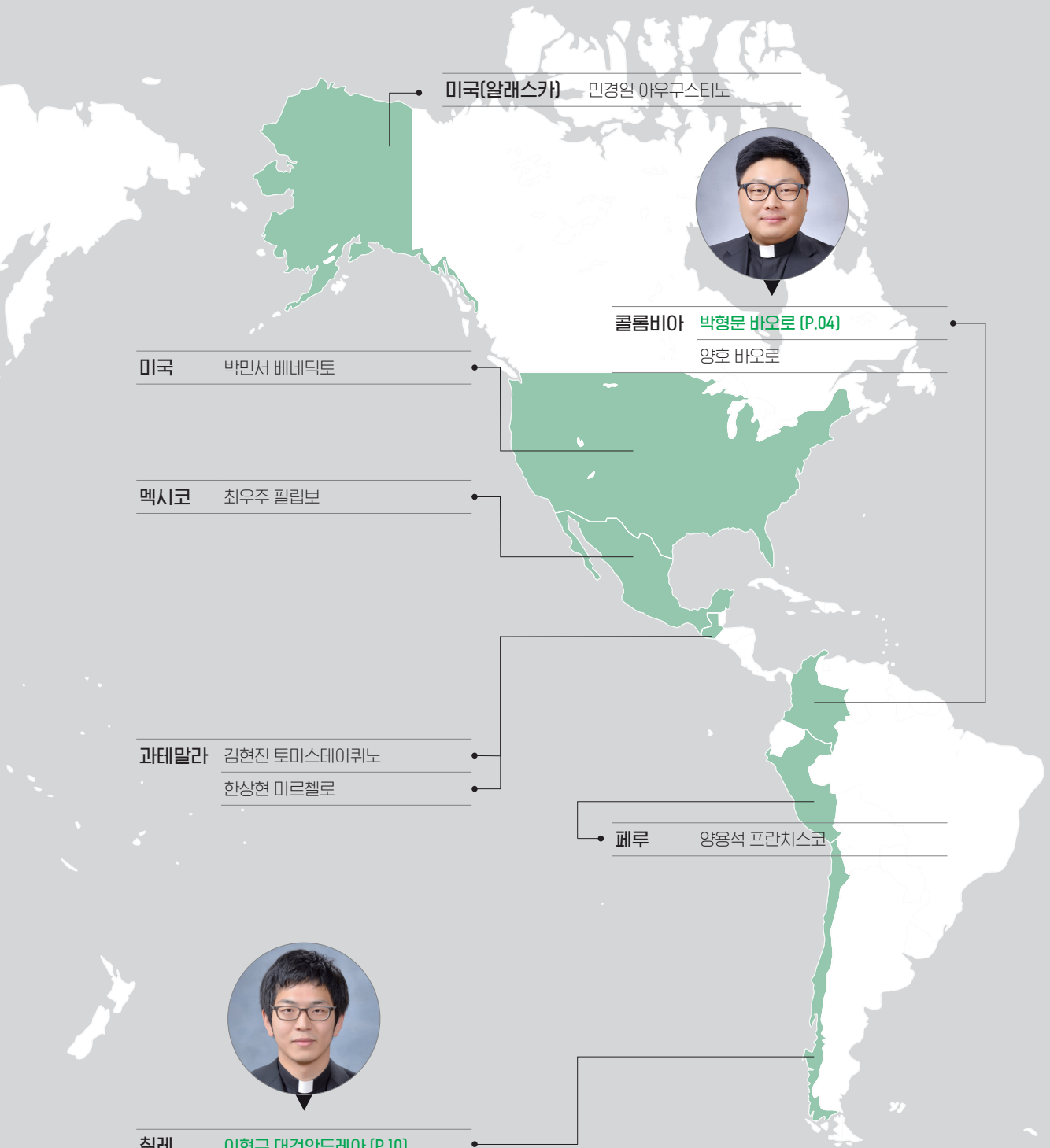


겨울호 특집

1.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칠레 이현규 신부님 (p.10)

2. 특집 | 평신도 선교사 남정 아나스타시아 (p.14)

3.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 일본 이종안 신부님 (p.24)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P.04)
양호 바오로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멕시코 최우주 필립보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한상현 마르첼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P.10)
정성훈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신부 콜롬비아 엔가티바 교구

저는 현재 콜롬비아 엔가티바 교구 ‘그리스도 사제 성당’(Parroquia Cristo Sacerdote)에서 선교 사제로 있는 박형문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곳 콜롬비아 선교를 발령받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서울 이문동 성당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깊은 뜻으로 2020년 12월 이곳 콜롬비아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산타페데보고타

면적 114만km²
[세계 24위,
한반도의 5배]

인구 5,088만 2,891명
[세계 29위]

종교 천주교 79%
개신교 14%
기타 7%

성인 4명

복자 13명

수호 성인 치킵키라의 성모

관할 구역 대교구 14개, 교구 52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0개

그런데 이곳 콜롬비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성당은 문을 닫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미사를 봉헌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발생이 많게는 3만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고, 하루 사망자가 많게는 600명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의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도 드릴 수 없었고, 스페인어 학원도 갈 수 없어 그저 사제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이후, 이곳 콜롬비아에 백신 수급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백신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저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 코로나의 위험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부분은 매일 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조심스레 나오던 신자분들의 수가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를 드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아직 언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늘 미사 전에 미사 경본과 복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복음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읽었지만,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자석에서 어떤 분이 그 단어를 읽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발음을 듣고 그날 복음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신자분들은 제가 복음을 읽을 때 다시 버벅대면 함께 읽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몇 명의 신자분들은 발음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몇 명의 신자분들은 복음 읽는 것을 도와준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외모와 언어 생김새가 다른, 한국에서 온 동양인 신부가 자신들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께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하느님 나라 백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동양인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동양인을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길거리를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스페인어 학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이 많은 아침 시간이라 저는 버스에 서 있었고, 몇 정거장이 지난 후 한 어머니와 어린 남자아이가 버스를 타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자 저 또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언어공부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표정이 어두운 상태였는데, 그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저의 얼굴과 마음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동양인을 처음 보는 것일 수 있고, 제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치고 힘든 날이면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고, 저도 모르게 긴장하며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인데,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는 저에게 아이의 웃음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보 선교사가 겪어야만 하는 많은 부분을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에 늘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위해 그리고 많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에게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요한 4,1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선교지
이야기

대만



임창재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대만 타이중 교구

찬미 예수님!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진 코로나 덕분에, 늘 인사말도 코로나 안부를 여쭙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면으로 만나 뵙는 모든 분, 코로나 상황에도 다들 무탈하신지요?

대만에도 계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무덥고 습하다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다들 두툼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 내기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 저는 얇은 플러지 셔츠 하나 입고 이 시



간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타이중(타이쥡) 지역입니다. “대만”의 “대”자 발음이 ‘타이’이고, ‘중’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자 “가운데 중”입니다. 즉, 대만의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부의 수도 타이베이와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남부 까오슝의 딱 중간 지역. 그러니까 대만 섬 전체로 봐도 딱 중간입니다.

올해 초 2년여 만에 휴가를 잘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와, 주교좌 성당 신부로 다시금 생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지내고 한 달 여 쯤 지났을 때, 이곳 대만에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방역 3단계까지 이르면서(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제한 조치를 거쳤고,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황은 아니겠으나,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원래 코로나 검사 수도 적었고, 백신도 한참 부족해서, 대만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는 좋아져서, 백신 접종은 열심히 진행 중이고, 그러나 여전히 선제 검사는(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기간 중에 두 달여 중단했던 미사가 다시 재개되었고, 그렇게 본격적인 올해 여름도 찾아왔습니다.

한편, 대만 타이중 지역에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해오신 ‘예수 성심 시녀회’ 수녀님들께서 본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자분들은 많은 아쉬움 속에 이별을 받아들였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²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교구 1개
구역 교구 7개

고, 이에 주교님께 정식으로 사제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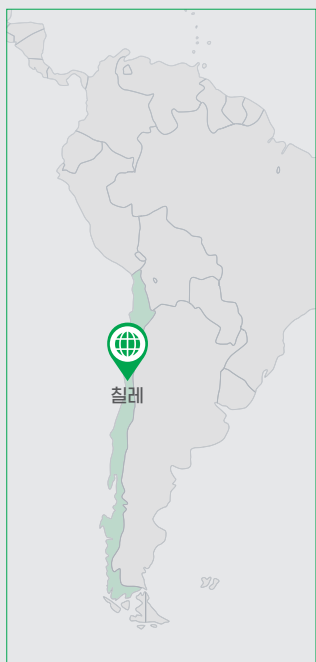
몇 차례 미사를 도와 드리면서 작은 인연이 있기는 했지만, 타이중 교구는 인사 회의를 열어 저를 이 본당에 파견하였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녀님들을 잘 배웅해 드리고 돌아와서, 현재는 제가 본당을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닿으려면 차로 10여 분 나가야 하지만, 가끔 바다 내음도 나는 듯한, 서쪽 지역의 아주 작은 성당, 루깁 본당입니다.

이곳을 지켰던 예수 성심 시녀회 유정순 수녀님은 28년여를 대만에서 지내셨습니다. 대만에 오셔서 중증 장애 친구들을 위한 시설에서 소임을 시작하셨고, 오랜 시간 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시설과 지역 사회, 지역 교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주민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수도자 복을 입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며 선교 소임을 다 하였습니다. 좋은 모범을 선례로 보여주신 덕분에 쫓아가야 할 부담도 크지만, 다시금 숨을 가다듬고 앞길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중입니다.

시간으로 볼 때, 멀게는 대만 타이중 교구의 첫발을 뗀 메리놀 신부님들의 헌신과 또 가깝게는 그렇게 선교 소임을 마무리한 여러 국적, 여러 지역 교회, 여러 선교회의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당 마당에서 산책하다가, 그렇게 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성호를 긋습니다. 모든 일은 하느님 뜻대로…. 아멘.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신부

칠레 이키케 교구

찬미 예수님! 저는 지금 칠레 북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한국 사람들에게겐 그저 긴 나라 정도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중 수도인 산티아고가 센터인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북쪽으로 대략 1,800km 즈음 떨어진 곳에 저희 본당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만까지의 거리가 대략 1,600km가 조금 넘으니, 같은 나라이지만 거리상으론 제법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당은 Alto-Hospicio(알토오스피시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면적 76만km²
[한반도의 약 3.5배]

인구 1,911만 6,201명
[세계 63위]

종교 가톨릭 45%
무교 32%
개신교 18%
기타 5%
[2019년 통계]

- 칠레 교회는 2010년 이후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이 59~80%의 신자 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비됩니다(2019년 통계상 45%).

성인 2명

[Teresa de Los Andes,
Alberto Hurtado]

복자 2명

[Laura Vicuña,
Enrique Alvear]

관할 대교구 5개, 교구 19개

구역 성직자치구 1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개

1980년대 들어서 새롭게 생긴 신도시입니다. 원래는 해안가에 Iquique(이키케)라는 항구도시에서 시작된 마을인데,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근처 10km 정도 떨어진 뒷산에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저희 도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식 인구가 130,000명, 추정인구는 대략 150,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하나의 중소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집계된 인구와 실제 인구가 다른 것은, 집계 불가능한 불법 거주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던 2017년과 비교해봐도, 불과 4년의 기간이지만 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고, 여러모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병원과 쇼핑몰 유치까지 계획되고 있어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거대해지는 만큼 교회도 빠르게 움직여왔던 지역입니다. 현재 전체 도시는 3개의 본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4개 정도의 공소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본당도 총 5개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중 4개가 21세기 이후에 새롭게 설립된 공동체들입니다. 사제가 더 많았더라면 본당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교구 형편상 사제는 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3개의 본당으로 나누어, 사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새로 생긴 지역이다 보니 교회의 관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비록 사제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수도회와 종신 부제님들이 우리 공동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4개의 수도 공동체가 저희 본당 구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신 부제님들을 포함 총 11명의 봉헌생활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각 공소 별 거리가 대단히 멀진 않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구역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제로서 온전히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이 늘 항상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신 부제님과 수사님, 수녀님들의 동반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곳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나 부속 건물의 건축 문제도 남았고, 불법적으로 점거된 상태로 시작된 도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를 합법화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전기나 수도의 문제도 남아있고, 사회적으로론 여전히 가난과 범죄, 불법 약물, 기본권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휩쓸려가는 사회 분위기에 의한, 교회와 신앙의 위기 역시 커다란 도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아직 남아있는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도 아직 하느님을 찾고 기도를 하며 성당의 문을 두드리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변변한 도움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모자란 사제이지만 이렇게 그들의 역사의 한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삶,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선교사의 시간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깊고 심오한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오늘도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인 우리입니다. 비록 서로 알진 못하고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지만,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나마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소식지를 통해 많은 한국 신자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집 기사

남정 아나스타시아 선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당산동 성당의 주일학교 교사 출신으로, SMA 선교회와 2년의 계약을 맺어 탄자니아에서 활동했고 22년 2월에 귀국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히 활동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남정 아나스타시아 평신도 선교사 (탄자니아)

+ Tumsifu Yesu Kristo, Milele Amina.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영원히 아멘.)

동아프리카에서 통용되는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드린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선교사 남정 아나스타시아입니다. 현재 Society of African Missions(SMA) 소속으로 탄자니아에서 2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MA는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이탈리아 로마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선교 중심 선교회입니다. 저는 탄자니아 제2의 도시 므완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호수가 지척에 있어 물 걱정은 크게 없는 편이지만, 수도 시설이 열악한 탓에 우기가 되어야만 농업을 그나마 수월히 진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케냐 출신 주임 신부님, 나이지리아 출신 보좌 신부님과는 영어로, 현지인들과는 스와힐리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과연 이중 언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 때 영어가 관심 과목이 아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겐 딱히 필요하지 않았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두 개의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습득하는 언어가 늘어 가면서 지금은 현지인들과 약간의 농담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의 말을 기다려 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크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에서 외국인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대해 무지한 현지인들에게 동양인들은 대부분 ‘중국인’의



로 여겨지고, 어디를 가든 ‘China china’라며 ‘칭챙총’과 같은 차별적인 발언이 날아오기 일쑤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기에 무시하는 작전을 펼쳤지만, 지금은 “너는 케냐인이야? 네가 해외에 나가서 무조건 케냐인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인사를 나누고 싶으면 Hello로 충분해.”라고 스와힐리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설명을 하면 그들도 받아들이고, 또 제가 스와힐리어를 하는 것을 신기해하며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하는 일이 그 연장 선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이곳 주변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약간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자니아의 교육 시스템은 Secondary School, 즉 중·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은 필수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을 정해서 수업 일정을 본인 스스로 구성합니다. 그중에는 종교 과목(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이 있는데 저는 가톨릭 학생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

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 열심히입니다. 매년 교구 주최로 열리는 대대적인 교리 시험 성적이 졸업 예정자들의 성적표에 반영되고, 또 본인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심신 깊은 마음으로 주일 미사에서 기쁘고 우렁차게 성가를 부르는 걸 보고 있자면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탄자니아 정부도 통학을 전면 금지했기에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본당 수녀님을 도와 본당 초등부 아이들과 회합의 형태로 만나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교가 재개된 2학기가 되어서야 브위루 남자 중·고등학교(Bwiru Boys Secondary School)에서 약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키탕기리 중·고등학교(Kitangiri Secondary School)로 옮겨 1학기에 400여 명, 2학기에 다시 학교를 이동하여 음나라니 중·고등학교(Mnarani Secondary School)에서 35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 정든 학생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학생에게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쓰시는 이유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지 알려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은 ‘기도’를 주제로 수업을 계획하던 중, 학생들에게 가톨릭 기도서를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서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특히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꼭 주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 생활비로 지내는 제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해 볼까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떠올랐고,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는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무교이거나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사랑을 보여 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되어서 정말 뜻깊은 일이 되었습니다. 성탄과 부활에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탄·부활 선물이라곤 처음 받아 본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여전히 생생히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국의 한 장애인 복지관과 연결이 되어,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계단 형태의 교실 입구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에서도 도움을 받아 이번 성탄 선물 작업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학생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한국의 친구들과 이곳의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길 희망하게 됩니다.

아무 탤런트도 없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교리교사로 선교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지낸 시간이 짧지 않았고, ‘선교’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는 조금이나마 교리를 공부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셨고, 또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준비시키신 뒤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 순간들 모두 주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고 계시고, 저를 위한 계

획을 마련하고 계시며, 그렇게 저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고 계시기에 저는 믿고 따를 뿐입니다.

오랜만에 한글로 긴 글을 써 보았습니다. 부족한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 있다 보니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는 사랑의 나눔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곳에서 기쁘고 행복한 선교 활동을 통해 그 나눔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7)





선교지
이야기

일본



김성천 스테파노 신부

일본 후쿠오카 교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올해 4월부터 지내고 있는 새로운 본당 생활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파견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후쿠오카 교구는 3개의 현(일본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현, 사가현, 구마모토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턴 올 3월까지 1년간 후쿠오카시 시내에 있는 ‘차야마 성당’이라는 곳에서 협력 사제로 활동하였고, 4월에 구마모토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마모토시 시내에 있는 ‘테토리 성당’과 ‘오비야마 성당’의 보좌 신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동할 당시가 생각납니다. 비록 협력사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7.1%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제로서 1년간의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차야마 성당’ 신자 분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섭섭한 마음이 컸고, 떠나기 전 서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기회가 될 때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쿠오카 교구에 온 후로 줄곧 후쿠오카 시내에서만 생활을 했기에, 새로 이동하는 구마모토 지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현을 포함해 제가 지내게 될 성당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구마모토현의 면적은 7,409km², 인구는 173만 여명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충청북도(면적 7,407km²)와 비슷하고, 인구는 충청북도(인구 160만 여명)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시는 인구 74만 여명의 도시로 성당은 시내에 5곳이 있습니다. 현재 본당의 주임신부님은 시내 중심에 있는 ‘테토리 성당’에 머물며 사목하고 계시고, 저는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비야마 성당’에 주로 머물면서 주임신부님을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토리 성당’은 유서가 깊은 곳으로 1889년에 설립되어, 1894년에 성전 봉헌이 있었고(새 성전 봉헌은 1928년), 교적상 신자 수는 천 명이 넘습니다. ‘오비야마 성당’은 1963년에 설립되었고, 신자 수는 약 240여 명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당 근처에는 여자 수도원이 있어, 주임신부님과 저는 평소 본당 미사와 수도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역에 따라 가장 높은 등급의 ‘긴급사태 선언’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만연방지’라는 중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제가 있는 구마모토현은 ‘만연방지’ 조치 상태였는데, 교구 방침에 따라 교우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기본적으로 계속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임이나 행사 등 다른 활동들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로의 날 행사 등 어떤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비야마 본당 신자를 맡아서 하던 병자 방문도 병원이나 요양원은 사정상 어려웠던 곳이 많았



습니다. 따라서 자택에 계신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만연방지' 조치가 해제된 뒤로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감염 예방에 신경을 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비야마 본당 신자 중 고3 학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데, 성당 회관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당 신자분들과 지역 자치회에는 봉사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이 어린이 식당은 현재 일본 전국 각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을 제안한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는 등 어린 아이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무료식당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주임신부님의 허락 하에 학생의 부모님과 신자들, 지역 봉사자들의 협조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비야마 성당에서의 어린이 식당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되어 매월 1회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립니다. 방역 수칙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당 회관 측면은 벽 구조가 전부 분리해서 떼어낼 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을 운영할 때는 문을 떼어 식당 공간이 외부와 바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를 포함해 고등학생까지이지만, 주로 20~30여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놀이 도구를 준비하고, 과자 등 선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역 내 상담사가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을 제안한 고등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배식 봉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발령한 '만연방지' 기간 중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도시락 형태로 아이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식당 운영에 함께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 가운데 몇 분은 비신자이지만, 음식 준비 이외에도 시작 기도와 마침기도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톨릭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신자는 아니지만 식자재 등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밖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 덕분에 성당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매 번 오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날 때면 정말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 점점 친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본당 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어린이 식당은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봉사자들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기쁨 속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식당이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심 속에 본당 신자들과 지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성당이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온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성당 마당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뛰어 놀고, 어린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지만, 따뜻한 밥을 통해 서로의 따스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이 보다 멀리 퍼져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시간 금방 간다!



이종안 사도요한 신부

일본 선교 후 귀국

야, 시간 금방 가더라...

이 말을 참 싫어했었어요. 군대 막 들어갔을 때 금방 끝난다고 하는 말, 신학교 입학 했을 때 신부 금방 된다고 하는 말. 그 외에도 무엇인가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조금만 힘내면 금방 끝난다고 하는 말 등등... 자기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끝도 안보이는구만... 금방 끝나긴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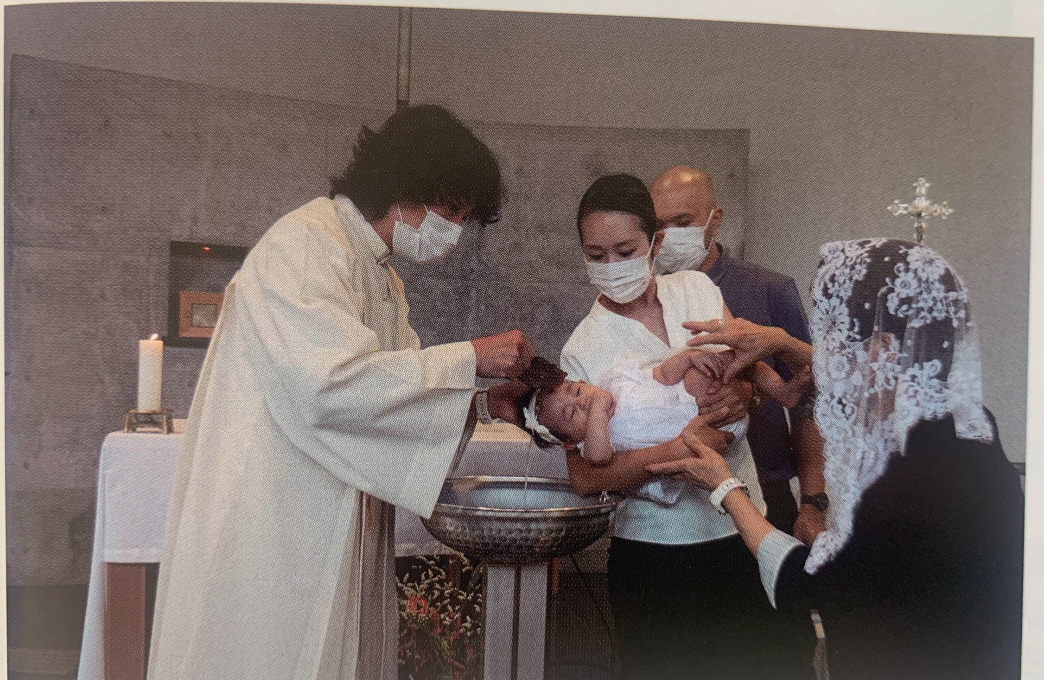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시간 금방 가더군요. ^^

무언가 거창한 이유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



病気の原因が恙虫によ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わかっているら、お祈りもいらないのではありませんか。



교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생활도 기대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일본 선교 사목 생활. 2007년 3월에 일본 도쿄대교구로 파견되어 현지 본당, 현지 신자분들과 함께 생활한 지 만 14년하고 8개월. 해외 선교 사제라 불렸던 삶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야,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

일본이 무슨 선교지냐?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잘살게 된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확실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혹은 신자도 없다는데 가서 뭐 하려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진짜 신자 수가 적은 곳이 일본이니깐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여 입교를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에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부분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가까운 나라, 우리보다 조금 더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교회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 그리고 다른 부분도 확실히 있었어요. 또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이기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케 ‘시간 금방 가더라’란 말을 할 수 있게, 무사히 다 마치게 된 것은 정말 은총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무엇보다 고국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해외 선교 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의 힘을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더 힘든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신부님들도 분명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말로 저 혼자 능력, 제 개인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외국에서 혼자 지냄으로써 오히려 서울대교구 사제들과의 유대감을 더 느끼게 되었고, 한국을 떠나있음으로써 오히려 우리말로 기도해주시는 한국 신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신자분들께도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우리의 복음은 한국산 복음 혹은 일제 복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한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행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 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기서도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음속에 품게 되었지요.

귀국한 지도 어느덧 약 한 달 정도 되어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받았던 것과 같은 설렘을 받고 있어요.

시간 금방 가더군요. 이 말은 모든 시간이 은총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느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23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이종안 사도요한
	한상현 마르첼로		김태근 베드로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윤복 모세
	김재원 베드로사뵈		신광수 베드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박민우 알베르토
멕시코	최우주 필립보		김필중 세례자요한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박민서 베네딕토(농인 선교)		김성천 스테파노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정성훈 프란치스코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서혜 강선경 강수희 강신희 강영자 강윤복 강이순 강정애 강정희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고경식 고영임 고윤숙 고의영 고혜숙 객민지 객상원 객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본강 구연모 구지순
 권경애 권성혁 권순주 권오경 권오영 권오중 권옥수 권운기 권익란 권혁민 권효정 길신영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현 김난옥 김남균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자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욱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흠 김상규 김상욱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송태 김수남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희 김시훈
 김신순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조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옥희 김완식
 김요자 김용기 김용혜 김용희 김우경 김원선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성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인자
 김임숙 김자원 김장목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원 김정용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지연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운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현상 김현수 김현정 김현준 김형찬 김혜선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성재 나정애
 남기완 남승민 남정순 남정희 남하현 노승경 노현주 노혜영 맹미숙 맹평자 모명자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민지희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기철 박기홍 박남주 박다은 박만기 박영숙 박명자 박미자 박병선 박봉자
 박상호 박상희 박설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영주 박옥순 박옥희 박용자 박윤경 박은덕
 박은호 박이순 박정남 박정숙 박종국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중 박춘지 박태련 박태안 박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명옥 백선혜 백승주 백용남 백은숙 백일순 백진희
 변광국 변신호 변혜숙 서대관 서수용 서수진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옥석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호숙 석정미 성락숙 성윤석 성정심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손희경 송금선 송기덕 송민석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길우 신미경 신상인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솔아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용순 신유리 신윤숙
 신재순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지인 신준호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재영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석 양정훈 양정희 양하나
 엄인영 엄주영 엄지원 연연희 연제현 연현철 오경진 오귀애 오명석 오명순 오미희 오복선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환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슬 왕은순 우영호
 원경식 원영연 유경자 유기정 유미숙 유 숙 유숙희 유승연 유연용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지는 유혜영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선화 윤소영 윤은희 윤재후 윤지숙 윤진숙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동률 이두식 이만수 이만재 이명옥 이명혜 이문춘 이미경 이민재 이민주
 이방자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순 이상구 이상규 이상영 이상윤 이선민 이선애 이성복 이성자 이숙노 이순금 이순이 이순자
 이승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덕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희 이용승 이용화 이우건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윤진 이윤경 이은자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령 이재만 이재준 이재찬 이재희 이점우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제현
 이종임 이종해 이주환 이준서 이준화 이지옥 이지은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진화 이창경 이창영 이채미 이철환 이춘자 이태숙
 이태순 이태실 이태중 이한선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현장 이형자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균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서영 임선혜 임수연 임수주 임순희 임옥연 임옥숙 임정렬 임주연 임태현 임현준
 임혜자 장래영 장명훈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정아 장진희 장차한 장춘자 장효숙 전경복 전동원 전병주
 전상아 전성실 전옥순 전용민 전은경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명아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세훈 정소영 정순이 정연호
 정영선 정목주 정완심 정용운 정윤순 정윤희 정재현 정정운 정지인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태양 정태원 정평화 정하영 정혜원
 정홍경 정효남 정효숙 정희자 제민경 조건웅 조경자 조나라 조도연 조무선 조문경 조병희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선미 주영신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명훈 차영미 채종서 채환찬 채희정 천봉순 천유진
 최경선 최경희 최길분 최동철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세화 최소중 최소형 최영순 최영옥 최옥경 최옥란 최 용
 최운근 최원우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제호 최준일 최지영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순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경하 한기봉 한동수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애 한은비
 한정복 한정준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만옥 허미래 허선아 허영진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해서 홍금선 홍석준 홍성희 홍순옥
 홍승애 홍승표 홍영덕 홍인자 홍재모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홍 황영옥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준익 황희남 김미카엘 박미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은혜상담소 킹스쿨학원 이형자임정옥 N G U Y E N V A N Fr.Stefano Fr.구본석
 Fr.김연범 Fr.김윤상 Fr.박규홍 Fr.박민재 Fr.박우준 Fr.오태순 Fr.이계호 Fr.이승규 Fr.임삼무 익명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3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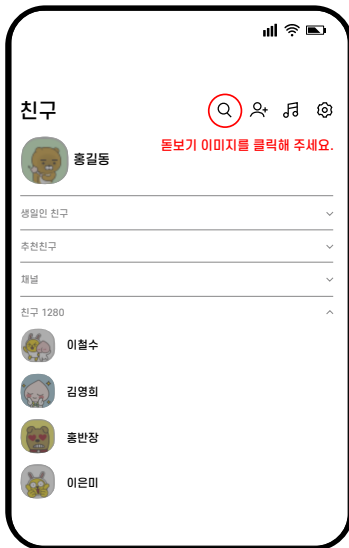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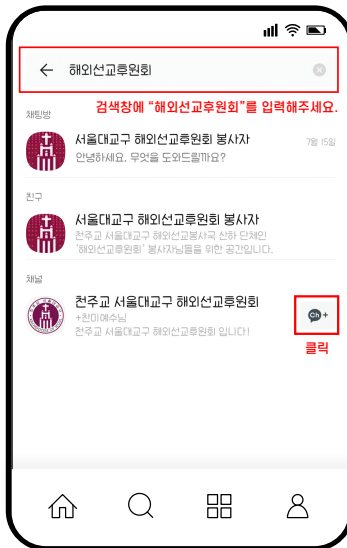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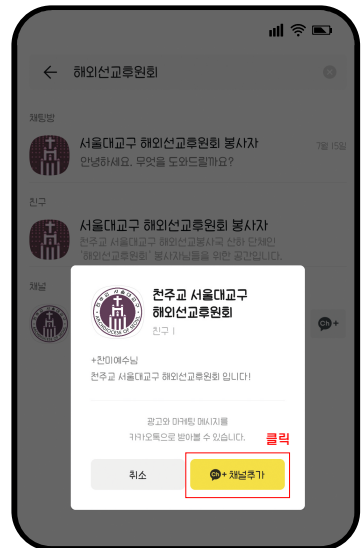
채널 추가 방법 ①



- 1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돋보기 이미지** 클릭!



- 2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3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채널 추가 방법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발급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2-727-2409>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2년 1월 중순 이후]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발급되오니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회 신년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2년 1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최우주 필립보 신부

(페루, 멕시코 선교 후 귀국)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 mission@seoul.catholic.kr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2월 14일(월), 5월 9일(월), 8월 8일(월), 11월 7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3월 7일(월), 6월 13일(월), 9월 5일(월), 12월 5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